

동원산업 탐방노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2Q18 어가 상승 및 어획량 회복 영향으로 매출/영업이익 고성장. 반면 3Q18 수산부문은 7월부터 FAD조업금지기간과 맞물리며 어획량 부진 우려 있음. 수산부문은 캐시카우의 역할 지속, 물류는 업황 안정성 유지, 유통은 향후의 주력 방향으로 사업 추진 계획

수산부문

3분기 수산부문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 1Q18 어획량 4.7만톤, 2Q18 어획량 5만톤으로 상반기 평균 어획량 5~6만톤 대비 매우 양호. 평균 어가는 1월 1,500불 → 2월 1,440불 → 3월 1,620불 → 4월 1,700불 → 5월 1,610불 → 6월 1,460불로 양호했으나 7월 어가 1,200불, 어획량 1.3톤으로 조업상황 다소 악화. 7월 FAD 조업금지 기간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 8월 어가는 1,300~1,400불대로 회복 중. 어획량은 1.2~1.3만톤 예상. 15년의 상황처럼 어가 1,150불까지 추가 하락하는 경우 저장 보관 후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 고려 중. 어가의 회복 속도 늦어질 경우 수익성 방어 차원으로 슈퍼 튜나 생산 계획. 슈퍼 튜나는 같은 선망선에 투자했을 때 이익률이 3배 이상 높으며 현재는 7척이 생산 가능함. 2년 후에는 9척으로 증가

C급 선박은 대체 완료된 상태. 새로 들어오는 선박은 9년 상각 예상

유통부문

스타키스트는 참치나 연어 외에 신규 파우치 제품(새우, 치킨)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18년 매출액 1조 2천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 목표로 사업계획 구상. 어가로 인한 수산 부문의 부진을 상쇄해줄 전망. 17년 기준 미국 M/S 46%로 1위. 세계 최대 참치 공장 보유 중. 스카사는 17년 적자 이후 18년 1분기 영업이익 17억원으로 흑자 전환. 참치 파우치를 아프리카에서 가공해 원가 절감 효과가 주효했음. 2분기 누계 영업이익 32억원으로 연말 70억원 전망

물류부문

18년은 작년 고속 버스 사업 부문에서의 매출 1000억 빠지는 걸 감안해서 작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게 목표. 동부익스프레스는 연간 매출액 7,000억원 무난하게 달성 가능. 전반적으로 베트남쪽에 사업 관심이 있음. 해외를 포함해서 M&A 기회 모색 중

Q&A

Q 배당 성향 동향은?

A 배당 성향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 올해에는 작년 이상의 수준으로 검토 중

Q 태평양/인도양/대서양 쪽의 어획 동향은?

A 태평양/대서양은 6월까지 5년 이래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었으나, 7-8월 태평양은 FAD조업금지기간 영향으로 생산량 떨어지는 기간. 최근 2년간의 7~8월의 평균 수준 유지. 인도양은 통상 9월~3월이 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라 6월 이후 어획량 감소 추세

Q 연어 양식 계획도 있는가?

A 국내에서 연어 양식은 불가. 해외 기업과 합자회사를 통해 영입하는 방향 검토 중

Q 작년 11월 발주한 선박 2척은 언제 들어오나?

A '19년 7월에 한 척, 9월에 나머지 한 척 들어옴